

RESEARCH ARTICLE

A study on exploring experiences of Mujusang-bosi (non-abiding charitable giving): Focusing 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hoi, Yeongim (Ven. Seung Woo)

Director of the Ministry of Prayer and Faith, Woljeongsa, Republic of Korea

무주상보시 실천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최영임(승우)

월정사 기도신행국 국장

Corresponding Author: Choi, Yeongim (Ven. Seung Woo) (cyi1128@naver.co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Buddhist practitioners' mujusang-bosi (non-abiding charitable giving) through their Buddhist religious life.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re: First, what are the experiences of Buddhist practitioners in practicing mujusang-bosi? Second, what are the reasons for Buddhist practitioners to practice mujusang-bosi? Third, what aspects of the Buddha do Buddhist practitioners model when practicing mujusang-bosi? To address these ques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 Buddhist practitioners who had experience with mujusang-bosi,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May 19 to May 26, and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Buddhist practitioners' mujusang-bosi practice through their Buddhist religious life, 15 categories were derived across 3 domains: 'experiences of mujusang-bosi practice,' 'reasons for mujusang-bosi practice,' and 'aspects of the Buddha modeled during mujusang-bosi practice.' First, analysis of the domain of mujusang-bosi practice experiences yielded 6 categories: material giving (jemul-bosi), dharma giving (beop-bosi), fearlessness giving (muoe-bosi), talent giving, giving through labor, and everyday giving practice. Second, analysis of the domain of reasons for mujusang-bosi practice yielded 4 categories: empathizing with others' suffering and the desire to help, personal satisfaction, habit, karmic connections,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practicing responsibility as a Buddhist practitioner. Third, the domain of aspects of the Buddha that participants modeled during mujusang-bosi practice yielded 5 categories: mujusang-bosi, compassion practice, giving, enlightenment and wisdom, and the Buddha as a practitioner of the Six Perfections (yukbarami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ought to explore the specific practical aspects of mujusang-bosi in a concrete and systematic manner.

Keywords: Buddhist practitioners, Buddhist religious life, mujusang-bosi (non-abiding charitable giving),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PEN ACCESS

Citation: Choi, Yeongim (Ven. Seung Woo). A study on exploring experiences of Mujusang-bosi (non-abiding charitable giving): Focusing 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5, 99-111.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5.35.7>

Received: December 03, 2025

Revised: December 09, 2025

Accepted: December 26, 2025

Copyright: © 2025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주변인의 행복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삶의 지향은 삶의 의미 발견과 동시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폭우로 물살에 휩쓸린 노인을 구조한 시민들(동아일보, 2025), 산불이 났을 때 동네를 돌면서 마을 사람들을 업고 댄 외국인 노동자(동아일보, 2025), 맨몸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살린 경찰관(연합뉴스, 2025), 발을 헛디뎠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해준 회사원(조선일보, 2007)은 주변인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의인들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공감, 감사, 그리고 긍정적 정서경험 등은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구해주는 이타행동을 하는 기제라고 주장하였다(박성희, 2004; 이수빈, 이희경, 2018). 즉,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이타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타행동은 외적보상을 바라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Batson, 1991), 협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 돕기, 양보하기, 기부하기, 시간이나 돈 혹은 물건 나눠주기 등을 포함한다(Batson, Duncan, Ackerman, Buckley, & Birch, 1981; Eigenberg & Mussen, 1989).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타적인 행동은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Andreoni, Harbaugh, Vesterlund(2010)는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김종운, 고영희(2018)와 도종수(2001)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타인을 돕는 사람들은 우울이 감소했고,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남궁운, 2004).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기쁨을 느끼며, 삶의 의미도 더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하, 이가연, 2006; 김진원, 이금룡, 2021; 박금자, 2006). 반면에, 행복한 사람이 소속된 조직에 더 많이 공헌한다는 결과도 있다(정숙희, 김익균, 2020; 조혜경, 2020). 다양한 이타행동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이타행동을 통한 사회적인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타행동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현대 심리학의 이타행동 연구 결과는 불교의 보시행 개념과 흥미로운 접점을 보여준다. 비록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다르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베푸는 행위가 행위자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불교의 보시행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이타행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시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시할 때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환희심을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수행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경전은 가리키고 있다(『증일아함경』 「지주품」(TD 2. p. 613a25-29). 즉, 탐욕의 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뉘우치고, 청정한 즐거움을 알아차리게 되어, 마침내 세속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장성우, 2023). 『화엄경』 58권에는 ‘삼륜이 청정한 보시는, 베푸는 자, 받는 자, 보시한 물건을 모두 허공과 같은 것(空)이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반야경』은 ‘보시했다는 생각, 보시받았다는 생각, 보시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보시’라고 설하고 있다. 즉, 삼륜청정(三輪淸淨)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의미이다(현대불교, 2019). 종범(2010)은 금강경 법문에서 무주상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법문에서 보살이 되면 발심하는 순간부터 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살행을 통해 중생심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상을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종범(2010)은 4상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탐진치애’로 설명하고 있다. ‘아상은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요, 인상은 다른 사람이 잘 못 했다고 화내는 진심이요, 중생상은 어리석음이요, 수자상은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더 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애착심이다.’ 또한, 종범(2010)은 『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법문에서 보살의 ‘응무소주 행어보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자생보시이다. 재보시라고 한다. 둘째, 무외보시((無畏布施)이다.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고 편안한 위로를 주는 것이다. 셋째, 법보시이다. 지혜를 깨우쳐주는 것이다. 육바라밀 전체를 보시로 본다. 육바라밀 첫번째인 보시는 자생보시 즉, 재물보시를 말한다. 육바라밀 두번째는 지계와 인욕이다. 즉, 계를 지키고 인욕을 하는 무외보시이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말한다. 육바라밀 세번째인 정진, 선정, 지혜는 법보시이다. 법을 깨우쳐주는 사람은 정진을 해야한다. 선정에 있지 않으면 법을 설할 수가 없다. 지혜를 닦지 않고는 법을 설할 수가 없다. 발심한 보살은 무엇을 하는가? 무주상보시를 한다. 지혜를 실행하는 보시가 무주상보시이다.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애취행 즉, 사랑과 집착으로 고통을 만들어 생사윤회를 계속한다. 반면에,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은 무주상으로 보시를 한다. 보살수행은 부처님의 생활이며 이것이 부처님의 사랑법이다. 받을 생각을 일체 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 부처님은 보시를 하되 구하는 마음이 없이, 바라는 마음이 없이, 취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를 한다. ‘무주상’이다. 보살은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불교의 보시행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무주상(無住相)으로 실천하는 이타행동임을 알 수 있다. 김근배(2017)는 보살의 이타행에 대해 ‘자리’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보살은 일방적인 자기 삶의 희생을 통해 타자를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며, 보살행은 이타 그 자체가 자리인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 김문희(2015)는 보시를 ‘도움’으로 정의하면서 무주상보

시의 교육적 의미를 제안하였다. 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상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스스로 사랑의 존재로 돌아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베품’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무주상보시의 이론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자들이 보시를 실천하는 구체적 과정과 경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불교의 무주상보시가 일반적인 이타행동과 구별되는 ‘무소득심(無所得心)’과 ‘무아(無我)’가 실제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협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 돕기, 양보하기 등과 같은 이타행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이타행동과 관련된 공감능력과 친사회적인 행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서 Davis(199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를 박성희(1997)가 변안하고 수정 및 보완한 공감능력 척도와 Eisenberg(1989)의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를 김수연(1995)이 친사회적행동검사로 변안하여 사용한 양적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타행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 중에서도 공감의 역할이 이타행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연구들은 이타행동을 경험할 당시 참여자의 행동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불자들이 도움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시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러한 보시는 부처님의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실제 보시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불자들의 경험을 확인해보고 이러한 보시행 경험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인터뷰와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Hill et al., 2005)을 통해 불자의 불교 수행생활을 통한 무주상보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자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불자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불자들이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시 모델링한 부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를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무주상보시행동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불교 기반 교육 및 심리상담 현장에서 보시 수행을 활용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적용하였다(Hill, 2011: 3-14; Hill et al., 2005: 196-205; 손강숙, 2014 재인용). 본 연구의 연구진은 무주상보시 경험이라는 연구 주제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으며, 이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방법보다는 심층적인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참여자는 무주상보시 경험이 있는 불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또한 Hill(2011: 3-14)의 제안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연령, 출가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의 조건을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종교가 불교이면서 다양한 종교생활 기간을 포함한 불자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모집과 선정과정

본 연구의 연구자는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스님의 추천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스님을 통해 소개받은 후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연구자는 스님께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 목적, 인터뷰 개요, 일정 조율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사전에 연구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님들은 연구 참여 후보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참여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추천받은 참여자에게 연구자는 먼저 전화로 연락하였으며, 사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직접 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 질문지를 확인시킨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참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신원이 충분히 보호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연구 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든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진행 중 정확한 전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이후에도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초 정보

사례번호	성별	연령	학력	종교생활기간	시작 이유	참여시기	얻은 것
1	여성	66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0년 이상	심리정서
2	여성	59	대학원 이상	1년 이상 5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년 이상 5년 미만	심리정서
3	여성	47	대학교 졸업	1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0년 이상	기타
4	여성	62	대학교 졸업	15년 이상 20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심리정서
5	여성	57	대학교 졸업	10년 이상 15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0년 이상	심리정서
6	남성	46	대학교 졸업	5년 이상 10년 미만	기타	5년 이상 10년 미만	심리정서
7	여성	62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년 이상 5년 미만	기타
8	여성	45	대학교 졸업	10년 이상 15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심리정서
9	여성	59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0년 이상	기타
10	여성	56	대학원 이상	1년 이상 5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년 이상 5년 미만	심리정서
11	여성	51	고등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년 이상 5년 미만	심리정서
12	여성	65	고등학교 졸업	20년 이상	-	5년 이상 10년 미만	심리정서
13	여성	56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부모님의 권유	10년 이상	기타
14	여성	68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기타	10년 이상	기타
15	여성	42	대학원 이상	1년 이상 5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0년 이상	심리정서
16	남성	66	대학원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기타	10년 이상	대인관계
17	여성	58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10년 이상	심리정서
18	여성	51	대학교 졸업	10년 이상 15년 미만	기타	기타	기타

평균 연령 56.44세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1) 면접질문지 구성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터뷰 질문지 초안을 검토하며,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질문을 받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고려하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인터뷰 질문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세 개를 완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

연구문제 1	불자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불자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불자들이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시 모델링한 부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2) 인터뷰 및 자료수집

인터뷰 및 자료수집은 2025학년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먼저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소요되는 시간, 녹음 동의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주상보시 실천 경험이 있는 불자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외부에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심리 및 상담 관련 박사학위자가 외부 감수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분석 과정은 ① 개별 분석 단계, ② 개별 분석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해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 ③ 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하나의 사례를 축어록으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하였다. 이후 연구자 각자가 영역을 설정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영역을 확정하였다. 나머지 사례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역을 구성한 후, 합의팀이 모여 일치하는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논의하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각 사례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1차 감수를 받았다. 감수 후 연구자 간 교차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된 내용을 다시 감수 받았다. 합의팀은 감수자의 의견을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Hill(2011: 3-14)에 따르면, CQR에서는 주제의 대표성을 빈도수로 결정하며, 이야기의 빈도는 단순한 숫자보다 질적 연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주의 빈도는 참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 ‘드문’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은 모든 사례 또는 한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를 의미하며, ‘전형적’은 사례의 절반 이상 혹은 ‘일반적’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동적’은 최소 두 사례 이상이 포함된 경우 혹은 ‘전형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드문’ 사례는 참여자가 1-2명 정도만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II. 연구결과

불자의 불교 수행생활을 통한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을 탐색한 결과,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무주상보시 실천시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의 3개 영역에서 1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와 전체 요약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결과 전체 요약

영역	범주	사례 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	- 물질적 나눔, 기부 등 재물보시를 실천함	전형적(9)
	- 불법을 전하고 수행, 기도, 경전, 법문 등 법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말과 태도로 위로하고 타인에게 평온을 주는 무외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지식, 능력, 경험, 기술 나눔 등 재능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봉사, 행사보조 등 신체 노동을 통한 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가족과 이웃,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일상 보시를 실천함	변동적(4)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천함	전형적(9)
	- 나 자신을 위한 수행, 치유, 만족을 위하여 실천함	변동적(8)
	- 습관, 인연, 환경의 영향으로 실천함	변동적(3)
	- 불교 수행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실천함	드문(2)
무주상보시 실천시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	- 무주상보시의 부처님	변동적(5)
	- 자비 실천의 부처님	변동적(6)
	- 베품의 부처님	변동적(3)
	- 깨달음과 지혜의 부처님	드문(2)
	- 육바라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	드문(1)

1.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의 영역을 분석한 결과 6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재물보시는 국제구호단체와 사찰 후원, 생활 필수품

제공, 기도비 납부 등 금전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둘째, 법보시는 염불봉사와 금강경 독송, 경전 나눔 등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무외보시는 말과 태도를 통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행위로, 부드러운 언행을 통해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넷째, 재능보시는 상담, 예술, 교육 등 개인의 전문성을 나누는 활동으로, 지속성과 자발성을 지닌 나눔의 형태였으며, 다섯째, 신체노동 보시는 사찰 청소나 차량 지원 등 몸의 참여를 동반한 실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자비 실천은 가족 돌봄과 음식 나눔, 기도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비심의 표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주상보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삶 전반에서 유기적으로 확장되는 자비의 실천임이 알 수 있었다.

표 4.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 분석 결과

영역	범주	사례 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	- 물질적 나눔, 기부 등 재물보시를 실천함	전형적(9)
	- 불법을 전하고 수행, 기도, 경전, 법문 등 법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말과 태도로 위로하고 타인에게 평안을 주는 무외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지식, 능력, 경험, 기술 나눔 등 재능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봉사, 행사보조 등 신체 노동을 통한 보시를 실천함	변동적(5)
	- 가족과 이웃,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일상 보시를 실천함	변동적(4)

1) 물질적 나눔, 기부 등 재물보시를 실천함 (전형적: 9)

“유니세프, 초록우산, 유엔난민, WWF, 국경없는 의사회에 매월 기부하고, 생일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염소보내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3>

“사찰에서 보시가 필요할 경우 기부보시를 하고, 어린이재단 등 매월 기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청소년 봉사단체 기부금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5>

“불전함에 준비한 깨끗한 지폐를 1000원권 혹은 5000원권, 가끔 10000원이나 50000원을 넣기도 합니다. 100일 기도비를 은행계좌로 이체하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날, 마음가는 사찰에 계좌이체로 10만원 정도의 기도비를 보냅니다. 현금이 넉넉지 않을 경우, 과일이나 음료수를 부처님 전에 올리기도 하며, 때로는 법당에 준비된 공양미를 구매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연구참여자 10>

“가난한 분들에게 돈이나 쌀, 생필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인쇄하는데 불편함 없어 사찰에도 보시를 많이 해드렸고 개인적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독송용, 사경용, 사불용으로 보시를 해드렸습니다.” <연구참여자 13>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병원비, 국경없는 의사회, 성가복지병원 등 대체로 아픈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곳에 기부합니다” <연구참여자 15>

2) 불법을 전하고 수행, 기도, 경전, 법문 등 법보시를 실천함 (변동적: 5)

“무연고자 염불봉사를 하고 천일기도도 올려주고, 우리말 금강경 보시, 자살한 영가 천일기도 올려주기 등 법보시를 실천해왔습니다.” <연구참여자 1>

“금강경 봉찬기도 차량봉사와 법보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7>

“그동안 스님들의 법문과 스님들께 들었던 지혜를 불교에 입문하는 보살에게 조금씩 전함.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참여자 8>

“사찰행사에 참여하면서 나눔도 하고 법보시도 하고 그리고 마음챙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경로당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인절미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좋았다.” <연구참여자 12>

3) 말과 태도로 위로하고 타인에게 평온을 주는 무외보시를 실천함 (변동적: 5)

“재물보시는 형편 되는대로 하지만,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드러운 미소나 따뜻한 말투는 돈이 들지않는 보시같아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화도 많고 어떤 상황에서 불만이 먼저 끓어올랐다면, 요즘은 스스로에게 좀 더 너그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아파트 경비아저씨, 청소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밝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연구참여자 15>

“항시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몸가짐을 예의 바르게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드럽고 환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하며 따뜻하고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합니다.” <연구참여자 18>

4) 지식, 능력, 경험, 기술 나눔 등 재능보시를 실천함 (변동적: 5)

“불자들 대상으로 법률상담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

“우연한 계기로 싱잉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싱잉볼 연주를 배우면서 스스로 느꼈던 좋은 경험을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 완화와 건전한 취미 활동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라인댄스 수업도 진행하게 되었고,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2>

“유니세프 후원장 합창단에서 각종 무료 공연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10>

“상담을 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상이나 음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0>

“내 전문분야에서 무료강좌와 무료 상담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6>

5) 봉사, 행사보조 등 신체 노동을 통한 보시를 실천함 (변동적: 5)

“불교사찰 문화재 해설사 청소, 템플관, 숲체험마을 명상, 문수선원 철야기도(금강경기도) 동참시 점심공양(떡, 과일), 문수선원 다라니기도 점심봉사, 포교사단 엽불봉사 집전, 원찰에서 행사가 있을 때 1일 봉사활동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4>

“매달 기도 동참시 차량을 지원하고, 행사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5>

“아이들의 초등시절에는 안전도우미를 시작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다음은 마음 도서관에서 봉사를 했고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는 아이들 마음을 알기 위해 상담 봉사를 시작했고,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절에서 필요한 일들을 봉사했고 청소, 정리 등을 했습니다. 법보지도 해보기도 했고, 타인을 위한 기도도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17>

6) 가족과 이웃,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일상 보시를 실천함 (변동적: 4)

“매월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보현불교대학 합창단 활동을 하고, 세등선원 초하루 찬불가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세등선원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 내가 일상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9>

“시부모님과 휴가 때 항상 같이 휴가가고, 국내여행, 해외여행도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 아이 낳게 해달라고 10년 이상 기도했고, 결국 낳아서 지금 20대 초반이 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4>

“시부모님, 친정엄마, 애기하실 때 그냥 잘 들으며 공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비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5>

“해마다 제철과일이 있으면 과일청을 담아서 친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8>

2.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영역을 분석한 결과, 4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실천은 가장 많은 참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이는 연민과 수행적 열망이 결합된 자비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 자신을 위한 수행, 치유, 만족을 위한 실천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으며, 나눔이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주는 수행의 일환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습관이나 인연, 공동체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실천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공동체적 분위기를 통해 형성된 내면화된 태도로 나타났으며, 넷째, 불교 수행자로서의 책임감과 종교적 자각에 기반한 실천은 보시바라밀 실천과 경전 이행을 일상에서 구체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주상보시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삶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수행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동기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5.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분석 결과

영역	범주	사례 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천함	전형적(9)
	- 나 자신을 위한 수행, 치유, 만족을 위하여 실천함	변동적(8)
	- 습관, 인연, 환경의 영향으로 실천함	변동적(3)
	- 불교 수행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실천함	드문(2)

1)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천함 (전형적: 9)

“내가 버는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영가들이 방황하고 소통스러워할까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품으로 천도제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부처님법을 배풀어서 그들도 실체를 알아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연구참여자 1>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 내 마음이 아파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쉽게 올라오는 걸 보면, 타고난 기질이 나눔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나눌 수 있으면 다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아픔이 싫어서,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봅니다. 나눔을 하면서 때론 몸이 힘들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때도 있지만 게을리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나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항상 어려움에 처한, 나보다 어려운, 나의 작은 도움이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기부를 항상 생각해서 우연한 기회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6>

“20여년전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어느 스님을 만나 봉사와 기도를 시작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법 만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달해주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무주상보시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3>

“나만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 곳곳에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때때로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 사무치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을 보는 게 내가 정말 잘하고 잘살고 있다는 지표로 느껴지고 하고, 도움이 됐다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5>

2) 나 자신을 위한 수행, 치유, 만족을 위하여 실천함 (변동적: 8)

“생일에 의미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이 계기가 되어 시작하였습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집을 사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길때마다 무주상보시 실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3>

“차량봉사를 하면서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봉사 자체가 즐거움이어서 무엇을 얻는 다거나 바라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늘 오직 할 뿐임을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보시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짐에 감사할 마음이어서 늘 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 7>

“나름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불법의 지혜를 생각하며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편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도 보람이

있고 조금은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8>

“처음 공양미 혹은 불전함에 깨끗한 돈을 넣는 이유는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유없이 따라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더 마음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10>

“내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선해지기 위함입니다. 지혜롭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이가 행복해 하는 것이 기분 좋기 때문입니다.” <연구참여자 11>

“식사봉사, 거리청소봉사, 아이돌 돌봄봉사, 이러한 봉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때로는 단체에서 하는 일이라서 할때도 있지만 봉사하는 마음이 즐거워서 합니다. 다녀오고나면 오늘날은 가벼운 날도 있고, 어느날은 짝한 마음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내 삶에 많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힘을 주지요.” <연구참여자 14>

“큰 것은 못 나뉘고 과일이나 차 정도는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저에게 더 의미 있습니다. 제 삶을 더 윤택하게 합니다.” <연구참여자 18>

3) 습관, 인연, 환경의 영향으로 실천함 (변동적: 3)

“우연한 계기에 합창단에 들어갔고, 나눔이 생활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을 좋아하여 일상 속에서도 누가 보지 않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즐거합니다.” <연구참여자 3>

“무주상보시는 어렸을 때 조부모님께 배운 나눔이 몸에 베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이웃과 나눔을 했고 봉사, 기부 등을 했습니다. 봉사, 나눔의 실천을 하면서 습관적이기도 했지만 뭔가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눔이라는 건 수행의 한 단계인 듯 합니다.” <연구참여자 17>

4) 불교 수행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실천함 (드문: 2)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행사 참여시 봉사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려하며 여러 단체에 기부금 후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회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5>

“앉아서 조용히 경전 공부하기 보다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을 만나고 희열을 느낍니다. 이 활동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에 다른 분들도 찬불가를 통해서도 부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누리고 살아온 만큼은 사회가 환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곳을 살펴주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참여자 9>

3. 무주상보시 실천시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

무주상보시 실천 시 참여자들이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 영역은 5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무주상보시의 부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여자들은 ‘오직 할 뿐’, ‘상 없는 나눔’ 등 금강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아와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나눔의 순간에도 분별없이 살아가려는 수행적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자비 실천의 부처님을 따르는 참여자들은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로움과 이타심을 중심에 두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통해 편안함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셋째, 베품의 부처님을 모델링하는 경우는 부처님의 모든 것을 주려는 법문에 감화된 실천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누며 평화와 안정감을 추구하는 행위로 구체화되었다. 넷째, 깨달음과 지혜의 부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여자들은 부처님의 깨우침, 화두, 마음챙김 등의 수행을 통해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행복에 이르려는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육바라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을 따르는 경우는 보시, 지계 등 바라밀 수행을 구체적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실천하려는 경향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무주상보시 수행 과정에서 부처님의 다양한 속성과 가르침을 자신에게 맞게 내면화하며, 그 모델을 따라 실천의 방향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무주상보시 실천시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 분석 결과

영역	범주	사례 수
무주상보시 실천시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	- 무주상보시의 부처님	변동적(5)
	- 자비 실천의 부처님	변동적(6)
	- 베품의 부처님	변동적(3)
	- 깨달음과 지혜의 부처님	드문(2)
	- 육바라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	드문(1)

1) 무주상보시의 부처님 (변동적: 5)

“국제선원 무상사에 조실스님으로 계시는 대봉스님께선 늘 “오직 모를 뿐”, “오늘 할 뿐”이라는 법문하십니다. 그저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라 배웠습니다. 요즘은 중범스님의 금강경을 들으면서 나눔도 생활도 모든 것에相應을 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부처님처럼 무주상의 모암으로,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연구참여자 7>

“불편함을 풀어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그 분들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했다. 부처님법을 실천하면서 무주상보시행을 수행할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2>

“금강경에 “일체유미법, 여몽환포영”, “모든 형성된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현장상황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부처님 법에 의지하며 ‘바른 견해’의 힘을 기르려고 ‘선’을 실천하므로 나를 맑게 밝히려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7>

2) 자비 실천의 부처님 (변동적: 6)

“자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집니다.” <연구참여자 8>

“자비로운 마음을 모델링하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난 것을 둥글둥글하게 하고 늘 혼자보다는 함께 나눔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한없이 느끼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 14>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자비심을 베푸셨던 것. 부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깨달으시고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지길, 깨닫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15>

3) 베품의 부처님 (변동적: 3)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법문에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연구참여자 4>

“가진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 베품을 통해 어려운 사람이 나아지고 나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 참여감을 느끼며 그 점을 모델링하는 느낌입니다.” <연구참여자 6>

“난 부처님의 전법륜행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듣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늘 발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부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조금이라도 닦아보려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3>

4) 깨달음과 지혜의 부처님 (드문: 2)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로움, 밝고, 긍정적이며, 행복의 원천,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인생임을 알기에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으니, 부처님의 깨달음 아니고는 이를 수 없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법은 아는 것이 없지만, 그분의 깨달음, “이렇고”하는 화두, 그런 것들로 깨우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구참여자 10>

“부처님의 깨우침을 모델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0>

5) 육바라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 (드문: 1)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육바라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 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불자의 불교 신행생활을 통한 무주상보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무주상보시 실천 경험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재물보시는 국제단체 기부, 사찰 후원, 기도비 납부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법보시는 염불, 경전 독송, 나눔을 통해 불교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무외보시는 위로와 배려의 언행을 통해 타인에게 평안을 주는 자비의 실천으로 형태로 드러났고, 재능보시는 예술, 상담, 교육 등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자발적 행위로 확인되었다. 신체노동 보시는 사찰 일손 돕기 등 몸을 활용한 직접적 실천이며, 일상적 자비 실천은 가족 돌봄, 음식 나눔 등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비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무주상보시의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무주상보시 실천의 동기는 네 가지로 나타났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은 가장 주요한 동기였고, 자신을 위한 수행으로서 치유와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을 고(苦)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만큼(박용식, 202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내재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 경험하게 될 만족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보상이자 중요한 내재적 동기라고 한 김승렬, 김진덕(2016)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습관과 공동체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실천과, 수행자로서의 책임감이 연구 참여자가 경전 수행과 신행으로서의 보시를 실천하는 것 또한 불자로서 부처님의 법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관심은 자기 자신 그 이상의 부분에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Milliren & Clemmer, 2006). 특히, 공동체 의식은 현재, 과거, 미래, 전인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Bitter & Carlson, 2017), Adler(1964)는 사람들이 타인들과 일치된다고 느낄 때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들이 불교공동체를 통해 의미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와 충분히 접촉하고, 기꺼이 서로 주고 받으며, 타인의 안녕을 위해 기여하고, 그리고 인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책임감을 가지고 습관처럼 실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무주상보시를 행함에 있어 모델링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다섯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상 없는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은 금강경 가르침에 따라 자아를 내려놓는 태도로, 자비의 부처님은 이타적 행위를 통해 편안함을 나누는 모습으로, 베푸는 부처님은 무조건적 나눔을 실천하는 이상으로 나타났다. 깨달음과 지혜의 부처님은 고통을 직면하며 수행하는 자세로, 육바라밀 수행자 부처님은 보시 등 수행의 지침으로 따르려는 경향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연구문제 1, 2에 비해 ‘전형적’인 응답은 나타나지 않고, ‘변동적’, 그리고 ‘드문’이 다수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주상보시의 모습을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면모에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참여자들도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을 스스로에 맞게 받아들이며, 실천의 방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무주상보시를 단순한 ‘나눔’이나 ‘기부’로 생각하기 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따르는 하나의 방안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인 자비의 실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무주상보시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주상보시가 현대 불자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무주상보시의 경험을 탐색함에 있어 한정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연령대,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폭넓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불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무주상보시 경험을 확인하였다. 다른 종교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면 범종교적인 봉사, 기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왜 참여하였는지 등 개인이 무주상보시를 하게 된 과정과 관련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주상보시를 통해 개인이 어떤 심리적 경험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진행한다면 무주상보시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불자의 불교 신행 생활을 통한 무주상보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불자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불자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불자들이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시 모델링한 부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였다. 이를 위하여 무주상보시 경험이 있는 불자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5월 19일-5월 26일에 실시하였으며, 불자의 불교 신행생활을 통한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을 탐색한 결과,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무주상보시 실천 시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의 3개 영역에서 1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 경험의 영역을 분석한 결과 재물보시, 법보시, 무외보시, 재능보시, 노동을 통한 보시, 일상 보시의 실천의 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무주상보시 실천 수행의 이유 영역을 분석한 결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의 만족, 습관, 인연, 환경의 영향, 불교 수행자의 책임감의 실천의 4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셋째, 무주상보시 실천 시 참여자들이 모델링하는 부처님의 모습 영역은 무주상보시, 자비실천, 베풀, 깨달음과 지혜, 육바라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의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무주상보시의 특정한 실천 양상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불자, 불교 신행 생활, 무주상보시, 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

참고문헌

증일아함경 (TD 2).

김근배 (2017). 자리아타행에 대한 현대윤리학적 의미 고찰: 효율적 이타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불교평론,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9> (2025. 7. 27. 확인).

김문희 (2015).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의 교육적 의미.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 (1995).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 과정변인, 사회적 유능성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렬, 김진덕 (2016). 자원봉사 활동 인정·보상 선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3(1), 71-95.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3), 99-126.

김재하, 이가연 (2006).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와 삶의 의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3), 326-334.

김종운, 고영희 (2018).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수용태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783-801.

김진원, 이금룡 (2021).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2, 5-25.

남궁운 (2004).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이 노인 사고감(四苦感) 해소에 미치는 영향. 지역학연구, 3(1), 173-209.

도종수 (20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동아일보 (2025). 떠내려온 車 몸으로 막고, 20분 사투끝 노인 구한 ‘카센터 의인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720/132034028/1> (2025. 7. 25. 확인).

동아일보 (2025). “할머니들 업고 뛰었다”...영덕 산불 속 외국인 영웅.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1/131324042/1> (2025. 7. 18. 확인).

박금자 (200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의 의미. 대한종양학회, 6(2), 104-110.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박용식 (2023). 경전에 나타난 자비실천의 통합적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59, 119-146.

손강숙 (2014). 학교폭력의 방어자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25). 불길 속 방안에 고립된 95세 할머니 구한 경찰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8055600054> (2025. 7. 18. 확인).
- 이수빈, 이희경 (2018). 감사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379-398.
- 장성우 (2023). 초기경전에 나타난 재가자의 보시와 사무량심 수행. *무형문화연구*, 11, 57-75.
- 정숙희, 김익균 (2020).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3), 779-800.
- 조선일보 (2007). 지하철 선로 추락 취객 구조한 '용감한 30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02/2007020200607.html (2025. 7. 18. 확인).
- 조혜경 (2020).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2), 578-585.
- 종범 (2010). 종범스님 『금강경』. <https://www.youtube.com/watch?v=HQ3wUnqmVIY&list=PLy5fl1q8udTR4E8D-70VsCaV9oe1W8Hh2> (2025. 7. 26. 확인).
- 현대불교 (2019). 보시자, 수자, 시물 모두 청정해야. 현대불교, <https://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279> (2025. 7. 27. 확인).
- Adler, A. (1964).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In H. Ansbacher & R. Ansbacher (Ed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Andreoni, J., Harbaugh, W. T., Vesterlund, L. (2010). Altruism in experiments. In *Behaviou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pp. 6-13). Palgrave Macmillan UK.
-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Hillsdale, NJ: Erlbaum Associates.
-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Birch, K.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2), 290-302.
- Baumeister, R. F., Vohs, K. D., Aaker, J. L., Garbinsky, E. N. (2013). Some key differences between a happy life and a meaningful lif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6), 505-516.
- Bitter, J. R., Carlson, J. (2017). Adlerian brief therapy with individuals: Process and practic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6, 31-44.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 Eisenberg, N. (1983). Prosocial developmental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 R. N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baugh, W. T., Mayr, U., Burghart, D. R. (2007). Neural responses to taxation and voluntary giving reveal motives for charitable donations. *Science*, 316(5831), 1622-1625.
- Hill, C. E. (2011).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Judge, T. A., Thoresen, C. J., Bono, J. E., Patton, G. K. (2001). The job satisfaction-job performance relationship: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7(3), 376-407.
- Li, Y., Ferraro, K. F. (2005).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1), 68-84.
- Milliren, A., Clemmer, F. (2006). Introduction to Adlerian psychology: Basic principles and methodology. Routledge.
- Musick, M. A., Herzog, A. R., House, J. S. (1999). Volunteering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4(3), S173-S180.
- Thoits, P. A.,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115-131.